

북스

Books

당신은 진정한 '인생 챔피언'

이것은 자전거... 랜스 암스트롱·샐리 젠킨스 지음
 랜스는 어떻게 해냈을까 브래드 컨스 지음



1903년 창설된 투르 드 프랑스(Tour de France)는 세계 최고 권위의 사이클 대회로 꼽힌다. 이 대회가 권위를 갖는 이유는 약 20여일 동안 치러지는데 총 경주 거리는 4천km 안팎이고 해발 2천m 이상의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하는 등 '지옥의 레이스'라는 별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 1999년부터 7연패를 한 사람이 있다. 주인공은 랜스 암스트롱(Lance Armstrong·36). 그는 고환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오랜 투병 생활 끝에 마이요 존(maillot jaune·종합 1위가 입는 노란색 상의)을 7차례나 입은 것이어서 전 세계인을 감동으로 몰아넣었다.

스포츠 전문기자 샐리 젠킨스와 함께 쓴 그의 자서전 '이것은 자전거 이야기가 아닙니다'가 7년 만에 출판사를 바꿔 개정판을 냈다. 그의 성공 과정을 분석한 자기계발서 '랜스는 어떻게 해냈을까'도 함께 출간됐다. 영화화가 진행되고 있어 더 관심을 끈다. '인간 승리의 교과서'라 할만 한 삶을 살아온 랜스의 이야기는 '영웅'을 목말라 하는 현대인의 눈을 번뜩이게 한다.

1996년 25살의 랜스는 사이클 세계 랭킹 5위권 진입을 앞두고 있었다. 힘들기로 악명 높은 플레체 알톤 경주와 12일 동안 캐틀라이나 지역 산을 지나 1천970km를 달리는 투어 뉘퓌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2위를 차지한 것도 여러 번이었다.

"그러나 사이클 팬들은 내가 투어 뉘퓌프에서 우승했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나는 보통 우승을 하면 결승선을 지나면서 주먹을 높이 치켜들고 하늘을 찢어대는데, 그날은 너무 지쳐서 그 세리머니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눈은 충혈됐고 얼굴은 온

통 붉게 달아올랐다."('이것은...' 13쪽)

명백한 암의 징후였지만, 랜스는 "견뎌야 해. 지금 피곤해 할 여유가 없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투르 드 프랑스와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해 랜스는 투르 드 프랑스에서 중도하차했고, 올림픽에서도 실망스러운 결과를 냈다. 그의 몸은 고환암 말기로 치닫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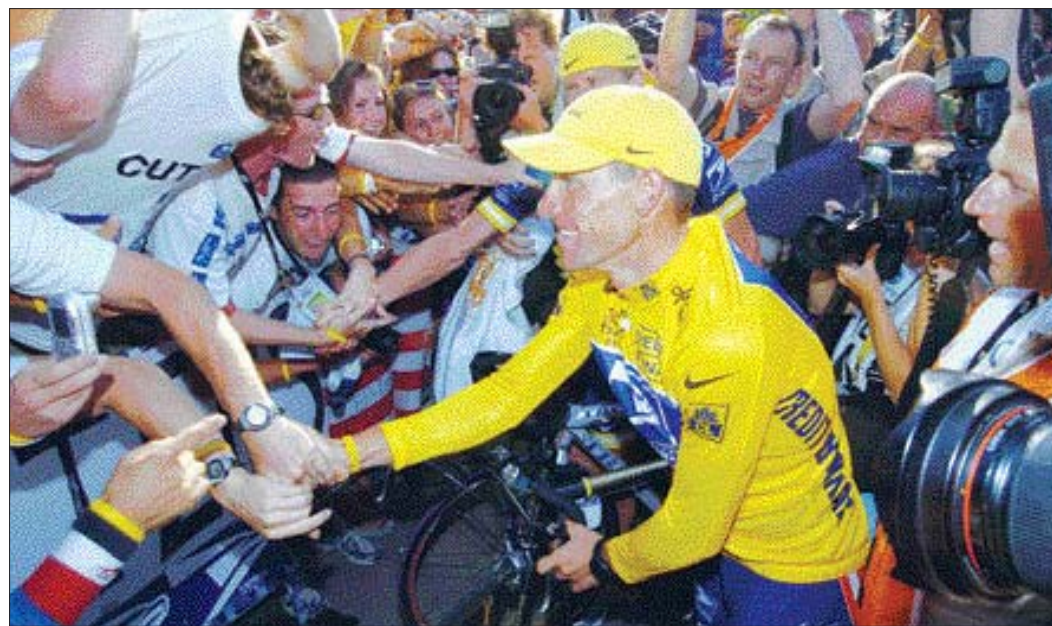
랜스를 기다린 것은 한쪽 고환과 뇌 일부를 잘라

내는 수술과 16개월 간의 항암치료였다. 암에서 회복한 랜스는 재활을 거듭해 1999년 투르 드 프랑스에서 우승을 일궈내고, 2005년까지 7년 연속 우승이라는 기적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랜스는 어떻게 해냈을까'의 저자 브래드 컨스는 그의 성공 비결로 ▲긍정적인 태도 ▲분명한 목적의식 ▲전문화된 지력 ▲순수한 자신감 등 4가지를 꼽는다. 랜스가 사이클을 시작하기 전 3중 철인 경기 선수 시절부터 같이 운동하며 친분을 쌓아왔던 브래드 컨스는 랜스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성공 비결을 풀어냈다.

랜스 암스트롱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초청을 받아 1일 개막되는 사이클 대회 '현대캐피탈 인비테이셔널 투르 드 코리아'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채널365·각 권 1만2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인간승리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랜스 암스트롱이 사이클 대회에서 우승한 뒤 팬들과 악수하고 있다.

미카 왈타리 역사소설

'시누헤' 국내 번역출간



1945년 핀란드에서 초판이 출간된 미카 왈타리의 장편 역사소설. 1949년 영어로 번역된 '시누헤'(전 2권)는 1983년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 출간되기 전까지 미국에서 '34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외국소설'이란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에 첫 소개되는 '시누헤'는 기원전 20세기 왕궁의 비밀을 엿다다 훑거나 다시 돌아오는 전설의 주인공 이름과 동일하다. 소설 속 시누헤는 의사 수련 과정을 마칠 무렵 창부의 유혹에 넘어가 재산과 부모를 잃고 광부로 전락하는 인물.

이후 탈출에 성공한 시누헤는 이집트를 떠나 바빌론, 히타이트 등을 넘나들며 새로운 모험에 나선다. <동녘·각 권 1만원>

'화약고' 위의 여인들... 아이들...

아시아의 낯선 희망들 이유경 지음



아마도 탈레반이 한국인 23명을 납치하지 않았다면 많은 국민들에게 아프카니스탄 분쟁은 정말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을 것이다.

어린 소년들이 총을 들고, 자살 폭탄테러를 감행하고, 자국민끼리 서로 총을 겨누며 수많은 희생자를 내는 나라는 비단 아프카니스탄만이 아니다.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다.

국제분쟁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경씨가 펴낸 '아시아의 낯선 희망들'은 아시아 분쟁 지

역 사건 현장과 사람들을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다. 한 미국학자가 "관광객을 염서에 어울릴 만한 섬이 아시아의 '가자지구'(팔레스타인 분쟁 지구)로 전락해 버렸다"며 안타까워했던 스리랑카는 20년 동안 내전으로 흐느끼고 있는 곳이다.

핵으로 무장한 인도와 파키스탄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카슈미르는 불안스런 '화약고'다.

또 저자가 '성자는 없다'고 말한 인도는 악명높은 카스트 제도의 최하층에조차 속하지 못하는 달리트들이 무슬림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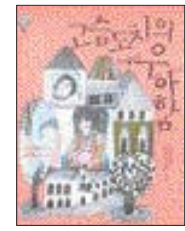
여성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여성의 존재가 수동적인 피해자라면 머무는 분쟁 지역의 현실을 딛고, 사선(死線)에서 후퇴할 줄 모르는 스리랑카 '터미널 이거'의 여성전사들 등 분쟁 지역 여성과 아이들의 모습에 주목한다.

저자는 1991년 인도 총리 라지브 간디를 자살 공격한 여성 테러기 다누는 자신이 인도군에게 강간당한 피해자였다고 밝히고 "전쟁이 한 개인에게 가져다 준 비극은 비단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다. 분노 가득한 저항이든, 적개심 차오른 보복이든 반응을 불러오고 만다"고 말한다.

자신을 '마'(누나)라고 부르며 쟁겨주던 20대 초반의 버마의 무장 투쟁 게릴라 광예의 모습, 약속장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태밀 테러기 여전사가 약속해 올몸보를 터뜨렸다 결국 인터뷰를 따낸 사연 등 취재 에피소드도 만날 수 있다.

이 책은 저자의 표현처럼, 분쟁 지역의 문제를 분석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여행기와 취재기의 중간 형식을 띠고 있다. <인물과 사상사·1만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고슴도치의 우아함=해리포터 열풍에도 율해 30주 동안 프랑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던 뒤리엘 바르베리의 장편소설. 파리 부자 동네의 고급 아파트 수위인 54살의 르네와 그곳에 사는 12살 천재소녀 팔로마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도 진지하다. <아트레·1만3천원>

▲사진, 미술을 초대하다=지금까지 사진은 미술의 아우 품으로 치부돼 온 게 사실이다. 저자 김석원씨는 이같은 인식이 편견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19세기 사진의 발명에서 현대 사진까지, 사진이 밝아온 길을 되짚으며 사진을 주연으로, 미술을 조연으로 내세운다. <아트북스·1만4천원>



▲독소소설=일본의 미스터리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집. 이번 소설집에는 추리가 아닌 '웃음'을 소재로 한 단편 12편이 실려 있다. 기발한 소재와 반전을 통해 그냥 '웃음'이 아닌 '쓴 웃음' 또는 '독기 품은 웃음'을 자아낸다. 시리즈 격인 '흑소소설'도 함께 출간됐다. <비움·9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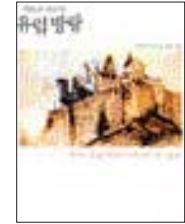


▲국어선생님의 과학으로 세상 읽기=배우고 국어 교사인 김보일씨가 쓴 과학이야기. 통합논술의 핵심인 독서, 사유, 글쓰기로 표현할 수 있다. 상식과 편견을 뒤엎는 35가지 과학이야기가 저자의 폭넓은 독서에서 우리나라는 인문학적 지식과 잘 버무려 있다. <휴머니스트·1만5천원>

▲예언가 우리 역사를 말한다=경희대 겸임교수인 백승종씨가 예언가와 예언서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쳤다. 왕건의 탄생과 등극을 예언한 도선국사, 고려 인종 때 풍수도참설로 서경 천도를 주장했던 승려 묘청 등 '정감록'에 나타난 역사 속 예언가들의 뒷이야기를 소개한다. <푸른역사·1만2천500원>



▲새롭게 쓰는 스탕달의 연애론=19세기 고전인 스탕달의 '연애론'(1822)을 새롭게 엮었다. 약 200년 전 작가가 말하는 연애법이 지금도 유효한 것은, 지금의 연인들 마음까지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문을 발췌 번역하고 현대 국어에 맞게 글을 다듬는 과정을 거쳤다. <삼성출판사·9천800원>



▲빅토르 위고의 유럽 방랑=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쿠데타로 제정을 수립한 나폴레옹 3세에 저항했던 정치인이기도 했다. 그가 저항운동 끝에 추방돼 19년 동안 유럽을 방랑할 때 썼던 글, 편지 등이 한데 묶였다. 스케치 80여점은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 <작가정신·1만원>

▲한국의 격문=국가의 중대 사안이 있을 때면 뜻 있는 사람들이 종지를 모아 선언문 등을 낸다. 통칭 격문(檄文)이라 불리는 종류의 글들은 그 자체로 중요한 1차 사료가 될 뿐 아니라 당시 상황을 이해시켜준다. 조선시대 관재우의 글에서부터 1990년대 민주노총의 글까지 160여 편이 실려 있다. <다른생각·2만9천원>



▲박남준 산방일기=영광 범성포 출신 박남준 시인의 산문집. 지리산 자락 경남 하동군 약양면 동매마을에 정착한 뒤 처음으로 출간하는 산문집이다. 바람, 햇볕, 반딧불이 등과 대화하는 시인의 삶은 그 자체로 시(詩)다. '돈 안 쓰는 삶'을 선택한 시인의 아름다운 일상을 만날 수 있다. <조화로운산·9천800원>

기쁨과 충무함으로 완성되는 엔틱의 명품

모디워갤러리 秋 특가판매

▶ 50% 할인 판매 ▶

모디워갤러리 공주점서방 (043)252-3001-2 | 금호아트센터 (043)351-4774

S the 1 요리학원 大특강 개강

▶ 개고기 카빙(carving) ▶ 과일조각장식 ▶ 스시(초밥)수강생모집 ▶

맛과 멋이 살아있는 행복한 요리교실! 당신을 초대합니다

- 개고기 카빙(개고기 요리)
- 과일조각장식(개고기 요리)
- 스시(초밥)수강생모집
- 개고기 카빙(개고기 요리)
- 과일조각장식(개고기 요리)
- 스시(초밥)수강생모집
- 개고기 카빙(개고기 요리)
- 과일조각장식(개고기 요리)
- 스시(초밥)수강생모집

062)385-0723~4

S the 1 요리학원